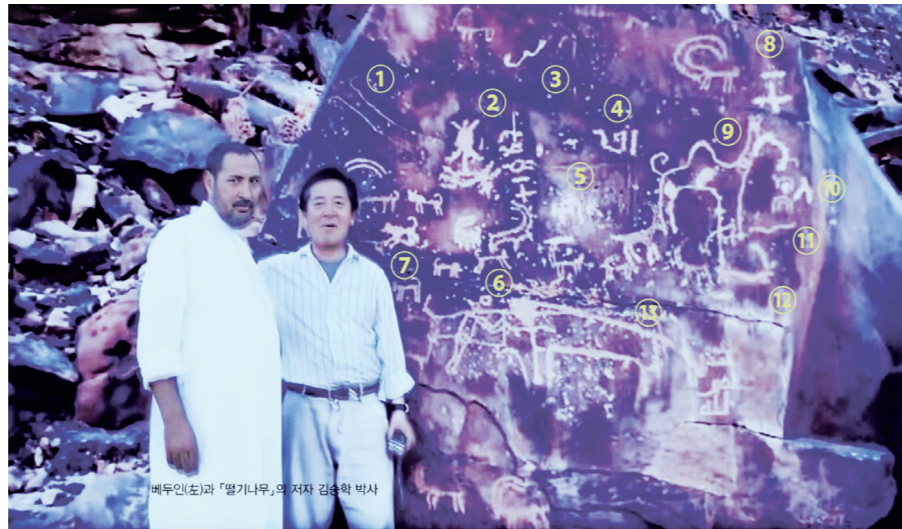


## 해 돋는 동방나라, 땅끝 땅모퉁이에 숨겨놓은 선민

이사야 41장 1~9절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지와 민족이 올드 네게브(Old Negev)어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벌여왔던 단지와 민족은 삼손 장수를 잃자마자 가나안 소라성읍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일이다. 단지가파 한반도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의 세웠는데, 그 당시 사용한 기와장에 새긴 꽃무늬 같은 문양이 이스라엘의 네게브와 라기스, 벤세메스, 여부스 등 남방접경에서 발견되는 올드 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똑같은 문자로 확인되었다. - 본지 8면에 '와당 특집' 참조



모세의 홍해기적을 표현한 시내산 암각화에 올드네게브 문자(원시가나안어)가 새겨져 있다  
사진출처: 논문 「대동강변 출토 히브리 문양 외양과 시내산(Mt. Sina) 암각화 문양 비교」에서

### 대동강변 출토 와당에 새겨진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가파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기와에 원형 외양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놓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

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Mt. Lawz)이 진짜 시내산(Mt. Sina)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라오즈산(또는 아몬드산 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위의 사진 참조)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원시타무딕 문자가 모세 시대(the period of Moses)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제임스 해리스(James R.Harris) 교수는 고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인 탐사를 통해 성서(聖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훼' 이름을 올드네게브문

자(BC1,200년)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 시나이반도와 고대 가나안지역의 암각화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로 확인된 고대 시나이반도의 문자를 '원시 시나이문자(Proto-Sinaitic)'로, 또 고대 가나안지역의 문자를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라고 명명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가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인 까닭은, 아마도 저 멀리 우르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남단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야훼'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문자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창 21:31). 더 나아가 노아의 장자 셈이 아브라함 150세 되는 해까지 살다가 600세에 임종한 것을 염두한다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는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언어와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合字)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字語)에 익숙한 단지가파 민족이 동쪽으로 이

동 중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 북쪽 시베리아반도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가파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단지가파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1,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는데(손성태 교수의 책 『한민족의 기원』 참조), 유태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물몬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가파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일한 풍습

승리제단 조희성 총재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한민족의 시조 '단군(檀君)'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족(原族)이라는 여러 증거 가운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레위기24:6)고 해서 유월절(the Passover)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민족이 이스라엘 소라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써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박태선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6> “이 역사는 만세 전에 예정된 역사”

이 역사가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만세 전에 예정된 역사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이다. 전지전능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의 불치병을 고쳐주면 그 능력을 만졌다고 한다.

이곳은 바로 영적인 목욕탕이다. 그런데 목욕탕엔 들어오지도 않고 때를 밀어 달라고 역사를 쓰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영적 목욕탕인 이곳에 와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전지전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되면 안 죽는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 행복한 노년 준비

##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혀

혀를 알면 내 몸을 알 수 있습니다. 혀는 입안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근육입니다. 구강 바닥에서 입안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며, 맛을 느끼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입의 기능에 기여합니다. 또한 언어의 발음에도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표면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전체를 혀뿌리, 혀몸통, 혀끝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 혀는 강력한 근육 중 하나

혀는 근육 덩어리로서 바깥근육과 속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바깥근육은 혀가 움직이고, 혀의 모양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속근육은 입속 물질을 삼키고 말을 할 때 혀가 알맞은 모양을 취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혀 밑의 중앙에는 혀주름띠(설소대)가 있으며, 혀의 뿌리는 분계구(terminal sulcus)의 뒤에 있으며 길이가 9~1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까지의 길이를 합하면 30cm 정도에 육박하며 목에서 시작된 8개의 근육이 엉겨 있습니다.

혀의 입천장 쪽 면(혀등)과 옆가장자리(혀모서리)에는 수많은 혀유두가 있습니다. 혀유두(설유두)는 가느다란 모양의 점막돌기이며, 혀등에 널리 분포해 있는 것은 실처럼 생긴 유두(약 0.5mm, 실유두, 사상유두)입니다. 또 혀 끝에는 버섯유두, 혀 가장자리의 뒤쪽에는 잎새유두가 있고, 분계구의 앞쪽에는 이 흡을 따라 혀 모양의 유과유두가 10개 정도 배열해 있습니다. 유두에는 맛 지극을 느끼는 신경의 말단이 있는 맛봉오리(미뢰)가 있습니다. 혀뿌리에는 림프구가 밀집한 림프절이 혀 모양으로 웅기해 있는데, 이것을 혀편도라고 합니다.

혀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씹는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레택의 운동과 치아의 작용, 그리고 볼, 입술과 혀는 함께 작용하여 음식을 침과 섞고 꿀고루 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도 혀가 기능을 하는데, 혀는 입안을 채우면서 음식물을 인두로 넘깁니다.

둘째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미각). 혀 유두에는 미각신경의 말초기관인 맛봉오리(미뢰, taste bud)가 있으며, 음식물 중 침에 녹은 물질이 맛봉오리를 자극해서 생기는 감각을 미각(taste)이라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등인데, 대개 단맛은 혀의 끝부분, 쓴맛은 혀의 뿌리 부분, 신맛은 혀의 옆구리 부분, 짠맛은 혀끝과 혀의 옆구리 부분에서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경계가 해부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구음작용입니다. 입 안에서 소리를 만드는 작용에서 입과 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모음에서는 구강이 공명장이 되어 음색을 주고, 자음에서는 혀 연구개 입술 불 등이 함께 움직여서 입안에 좁아지는 부분이 형성되면서 각기 다르게 발음됩니다. 재밌는 것은 심장과 턱 근육과 함께, 인체에 있는 수많은 근육 중에 크기(굵기) 대비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가 혀입니다. 보통 인간의 혀를 보면 아무리 길어도 9~1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까지의 길이를 합하면 30cm 정도에 육박하며 목에서 시작된 8개의 근육이 엉겨 있습니다.

### 혀의 색깔로 건강 가능할 수 있어

옛날 내시경이 없던 시절, 내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혀바닥을 봤습니다. 지금도 한의학에선 '설진'이라 하여 환자의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법을 행합니다. 혀의 형태, 색깔, 특정 부위의 흥을 통해 질병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혀는 '선홍빛'을 띠니다. 혀에 붉은 기가 적다면 빈혈이나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창백한 흰색'의 혀를 지닌 사람들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혀가 지나치게 빨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몸의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는 '어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혀의 색이 까무잡잡하다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혀는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건강 문제를 암시하고, 여성의 월경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혀가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이 혀의 건강도 나쁜 스트레스와 나쁜 음식물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4종류의 와당

원편의 사진은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에 해당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4종류의 와당(12지파 와당①, 꽃무늬 와당②③④⑤⑥, 단Dan의 독수리 와당⑦⑧⑨, 오뎀와 와당⑩⑪⑫)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동종(同種)의 와당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 ① 일본 테츠카이비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② 일본 테츠카이비대학 소장
- ③ 일본 테츠카이비대학 소장
- ④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 ⑤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강남구 원암리(銀巖里), 소장기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⑥ 출토지역: 한반도 북부, 동경 국립박물관 소
- ⑦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 ⑧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대동강면(大同江面) 토성리(土城里) 토성(土城),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본관(本館)-008464-003
- 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385-000
- ⑩ 일본 테츠카이비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⑪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429-000
- ⑫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소장기관: 국립광주박물관, 유물번호: 본8464(구 215)\*

## 정도령 아 면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상·하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이기는 삶

# 사과하지 않아도 될 때



현대인이 살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안합니다'이다.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며 용기(勇氣)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당신이 만든 실수(失手)에 대한 후회(後悔)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상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걱정과 고민(苦悶)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괜한 마음의 걱정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정심(平定心)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당신이 사과(謝禮)하

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당신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도전은 당신은 물론 당신의 동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어떠한 일에 진실을 말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고자질한다는 미안한 감정보다는 최대한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어 에너지가 방전된 채 억지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스로를 충전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 넷째 음식을 먹다가 디저트를 더 달라고 요구할 때 이에 대하여 미안해하는 사

람이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주는 사람도 당신이 많이 먹어주기기를 바랄 것이다.

다섯째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해도 된다. 부탁이란 서로의 인생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요청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도 된다. 당신이 매일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하여 아무것도 안했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쉬는 치료 중 하나가 된다.

일곱째 스마트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메시지에 대하여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메시지를 다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읽고 싶지 않은 메시지도 있다. 요즘은 보내는 사람이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참 곤란하지만 답장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덟째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을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직장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비호 같은 'YES'보단 현명한 'NO'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아홉째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가치관 등이 바뀌는 것에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양심, 하나님의 영! Conscience, the spirit of God!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the world: God's Holy Spirit and Satan's evil spirit.

하나님의 영은 우주 그 자체이며 절대 선의 영입니다.

▶ God's spirit is the cosmos and the absolute good spirit.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의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 The spirit of God is dwelling in the human mind as a form of 'Conscience'.

그러므로 양심을 통해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So everyone can feel shame for his wrongdoing through his Conscience.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이신 아담과 이브는 태초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피는 하나님의 피였으며 원래 마음은 양심 그 자체였습니다. 양심의 영이 하나님의 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 The first parents, Adam and Eve, were Gods in the beginning, their original blood was God's blood and their original heart was Conscience, which was a product of God's blood.

지금 아담과 이브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핏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 Now, the blood of Adam and Eve runs in the blood vessels of all mankind.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은 양심의 영입니다.

▶ So the blood of God, or His spirit in us, is really Conscience.

하나님의 영, 양심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Thanks to Conscience, which is the spirit of God, we are alive.\*

by Alice

## 꿈에 대하여...〈13〉

### 공부, 그 3개의 층-2편

지난 글에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붙잡는 첫 번째 층,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놓았으나 하나님과 내가 아직 서로 다른 두 존재인 두 번째 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나 나를 대신(代身)해 나 자신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층은 '오셔서 대신(代身) 맡김의 층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두 존재가 아니라 '나'로서 하나가 되는 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애초에 맡김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하시도록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간자의 말씀이나가 당위적일까요? 혹은 그것이 더 고차원의 공부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나의 정체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웃고 떠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원받으려 하고, 마음공부 한다고 설치는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신,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는 마귀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다.' 라는 이간자의 선언은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의 화두이자 답입니다.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것이요, 이걸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조사 지논은 <수심결>에서 '단지 불회(但知不會) 시즉견성(是即見性)'이라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그 사실만 알 아도 곧 견성이라.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 빛의 존재, 환히 밝혀 이는 지(知)의 존재요 마귀는 어둠의 존재, 무지(無知)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나는' 무지의 존재 즉, 마귀 신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마귀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임을 알면 그 자체로 견성(見性)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커녕 걸음을 걸어서도, 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한다 해도 마귀인 내가 한 짓인 고로 업을 쌓는 일이며 죽을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양 무제(梁武帝)가 나라 전체에 어머니마한 불사(佛事)를 일으킨 후 달마에게 '네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하고 물었다가 "하나도 없다."란 대답을 들었던 유명한 일화 또한 같은 장면입니다. 마귀 내가 몇 억의 헌금을 하고 제단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한들 그것은 마

귀가 마귀 짓을 한 것일 뿐이며 이간자의 말씀대로 죽을 죄를 진 것뿐입니다.

해서 "제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마귀인) 나 대신(代身)해 주세요..."의 절박한 말김이 저 스스로 필연코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한 서원,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주체영이 바뀌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셔서 대신(代身)의 맡김은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맡김은 주체영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영과 영의 싸움. 나 자리를 두고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마귀 신의 물리적, 영적 충돌이자 자리싸움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신입니다. 이간자께서 '사람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반사적으로 '아, 내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구나.'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바로 나란 말씀입니다. 마귀 신이 허울 좋은 자성(自性)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의식의 감옥에 가둔 채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 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이요 자성(自性)은 그저 죄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해서 자성(自性)은 쉽게 '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힘으로 나 자리, 주체영 자리, 권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성(自性), 내 속 하나님은 마귀 신인 나보다 힘이 약해서 주체영 자리를 빼앗긴 신입니다.

따라서 '오셔서 대신(代身)'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나,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임을 통감하고 나라는 자리, 주체의식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 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견성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마귀인 내가 좀 더 강력하고 훌륭한 마귀 신이 되겠다는 말발이며 언어도단입니다.

해서 옛 선사(禪師)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며 경계한 것이겠지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체영인 상태, 내가 주인공인 이 영적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하작(放下

着)입니다. 내 '갇이' 아닌 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목숨과도 같은 나라는 의식의 자리, 왕(王)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자살, 자기 살해이며 영적인 신체포기 각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이론이나 관념,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현재 주체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귀인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육에 갇힌 자가 마귀 육을 부수고 나오는 일입니다. 애초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간수에게 포박 당해 쇠창살에 갇힌 죄수가, 혼자 감옥을 부수고 간수를 제압하고 자유의 몸이 된 다. 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류사를 통해서도 이런 탈출에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한 사람들조차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의 끝없는 노력의 흐름이 어쩌면 인류를 지탱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범부중생들의 처지에서는 직접 이든 간접이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같은 하나님의 신의 흐름과의 연결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의 계보로는 첫 번째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에 이르는 흐름, 그리고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에서부터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으며 동양에서는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雲), 금운(金雲)으로 이어져 온 계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우치고 도통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인간, 인두검을 뚫고 당대에 등장한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 현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 누구누구가 훌륭해서 도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마지막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구세주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담을 하고 자신이 직접 구세주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울림이다. 옥황상제다.라고 한 최제우나 강증산의 자기선언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도

통한 인간 누구누구가 한 말로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마귀 나를 이기고 내 주체영 자리를 차지해 나를 할 신이 없다면, 마귀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이 없다면, 나를 대신(代身)해 달라는 말김의 기도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김이란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했겠지요. 온전한 말김의 기도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대신(代身)해줄, 나라는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의 등장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마귀를 죽이고 승리한 이간자의 등장 자체가 '오셔서 대신(代身)의 맡김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열쇠요 필요충분조건인 셈입니다.

성경은 왜 첫 번째 아담을 생령(生靈)이라 하고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태초의 예텐동산, 하늘나라에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입니다. 살아있는 생령의 신이니 생령(生靈)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왜 '살리는' 존재일까요. 삼위일체 한 몸이었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 의해 아담과 헤아로 찢겨진 채 마귀 육에 갇혀 죽어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 되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하나님, 죽어가던 아담과 헤아, 죽어가던 자기 자신을 되살리는 영이기에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 나를 죽이고 나 대신(代身) 나를 해달라는 말김의 기도가 필요조건이라면 그 기도를 상달 받아 나 대신 주체영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맡아 줄 두 번째 아담, 이간자의 존재가 충분조건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금운(金運)의 시대는 이기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代身)해 나를 해주는 시대이며 성경에서 예언된 '살리는 영' 즉, '두 번째 아담'의 시대입니다.

이간자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드셔 주세요'하는 말김의 기도로 먹으라 하십니다. 동학의 이천식천(以天食天)의 본질은 '오셔서 대신(代身)해달라는 말김의 자유율법입니다. 수운(水雲) 시대의 이천식천(以天食天)이 금운(金運) 이간자에 이르러 '오셔서 대신(代身)', 말김의 자유율법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해서 수운(水雲)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해월 최시형 선사도 '이천식천(以天食天)'이란 말씀으로 같은 이치를 설했던 것이지요. 이천식천(以天食天)은 직역하면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입니다. 먹는 자도 하나

님이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세계에서는 먹는 자도 하나님이고, 밥도 하나님입니다. 인간 나도 없고, 대상인 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이 장면에서 나와 대상,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천식천 以天食天' 이 한 구절에 동학의 근본원리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식으로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인간 나, 마귀 내가 날름 먹는 것과는 그 토대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었다. A가 B에게 C를 준다.? 이것은 신과 인간과 물질을 갈기나 나누어 놓은 채 감각자 약자를 취

하는 마귀 신의 카니발리즘(cannibalism) 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삼키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일 뿐이었던 식사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대신(代身) 드셔달라는 '말김'을 통해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취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원융무애(圓融無礙)의 장면으로 한 순간 환한 것입니다.

원융무애(圓融無礙)는 화엄의 구경(究竟)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圓)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융(融)은 녹이다의 뜻이니 원융무애는 원(圓) 즉, 하나님이 같거리 나닌 삼라만상을 자신의 품 안에서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내어 일원상(一圓相)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구현한 모습입니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밥 한 그릇 먹는 장면 하나가 물아일체(物我一體)요, 화엄(華嚴)의 극의(極意), 원융무애의 구현이라 하니 좀 거창하다 여길지 모르나 그것은 '오셔서 대신(代身)의 맡김을 진심전력으로 다 해보지 않은 자의 소언(小言)일 뿐입니다. 인간 '나', 마귀 '나'인 채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것만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아니다.'라 주장하면서 나 대신(代身) 나를 해주기 위해 호시탐탐(虎視眈眈)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는 자일 것입니다.

온전한 말김은 내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나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거니와, 이 시대는 '말김의 기도만 있다면 '말김을 해줄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오셔서 나를 대신(代身)해 달라는 진정한 말김의 기도만 있다면 그 기도는 상달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기는 者 하나님이요, 맡아주는 者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金擇 / kimtaek@nate.com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7화>

# 전능하신 여호와와 그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사야 5장 16절

###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벗어시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라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기에 주님께서 7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오 염된 피를 너무 토하니가 피를 토할 때마다 동반하는 고통의 눈물이 나오고 또 나오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눈물에는 피눈물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면회하러 간 이\*\* 권사는 “왜, 주님 눈이 시뻘겍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주님께서 “면회 온 사람이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라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음란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

한편 주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 구세주를 따르던 신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음란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옥중에 계시더라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속의 생명이 주님의 분신체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은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너한테서 음란죄가 온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여럿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잘못 떨어져 나갈까봐 “재출발을 해라. 그러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망신스런 일이지가 그걸 피해서 되도록이면 단 들어 있을 때 이야기하

고 그렇게 타이르신 것입니다.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유리알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환하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100% 모른 척하고 마귀를 100% 속여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조리 잘라버리면 하나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죄지는 것을 담당을 해가지고 씻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러 왔지, 이 사람이 사람을 이제 벌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음란죄 짓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었는데 면회하고 돌아가서는 또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도소 안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한테서 음란죄가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죄를 짓지 마세요!” 해서 음란죄를 계속 짓는 것을 교정시켜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음란죄가 한동안 안 오더니 나중에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였습니다. 음란죄가 온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것을 전부 알고 있지만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죄만 안 지으면 용서해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는 척을 하고, 지적할 때는 그 때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음란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란죄 지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수개월이 걸린 적도 있었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수개월씩 걸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게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죄를 지어도 주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아는 척하면요, 구원받을



▲ 고베승리제단 좌측모습



▲ 고베승리제단



▲ 고베승리제단 우측모습

고베 대지진(일본 한신대지진)으로부터 보호받은 (승리제단) 성도들 출처: [https://www.victor.or.kr/kor/sn\\_news/20031015/031015\\_sub9.htm](https://www.victor.or.kr/kor/sn_news/20031015/031015_sub9.htm)

자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데는 이 사람이 선 수야. 이 사람만큼 모른 척하는 쇼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이 사람 하나예요. 모른 척하는 거!”

###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의 사생활을 밝힐 것이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눈이 가려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거룩하고 성결한 구세주를 인간 죄인과 똑같은 것으로 예상하고 당신의 몸까지도 검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죄인들의 불경스런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일까요?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의 사생활을 밝힐 것이다. 이 사람이 영육 간에 고자라는 것을(1990.9.15 말씀 중에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 심판날에 그의 거룩을 입증하실 것이다’라는 이사야 5장 16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7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신 그 당일에 단상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바로 중성이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 오래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중성이 되어버렸어. 중성자로서 완성이 되었어요. 인간이 아

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변해서 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원간에 인간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중성의 빛으로 환원하여 죄인이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1998년 3월 25일경 고베에 사는 후지다 상이 옥중면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 “3월 23일 날을 기해서 이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안 가라앉게 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에 후지다 상이 “일본 땅이 지구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님한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후지다 상은 1995년 1월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고베 제단 건물은 금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베 제단 식구의 집들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같이 하나 보라!’ 하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슬 성신이 찍혀 나왔습니다.” 하고 옥중에 계신 주님께 그 사진을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본 나라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면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중에 절반 정도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수장되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단지와 만

족들이 죽는 것이기에 주님께서서는 당시의 민족인 일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는 후지다 상은 일본 수상을 했던 다나카 수상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다나카 전(前) 수상은 일본 시민의 한 사람인 후지다가 그런 전도를 하니까 ‘이거 뭐 조금 정신이 이상이 된 게 아닌가?’ 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후지다 상은 일본 땅이 가라앉는 것도 봤고 일본 땅이 가라앉지 않고 스톱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전도한 것입니다.

### 구세주 구속 직후, 옥해공 재난 사고가 연이어져

자비로운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려지는 오해를 살까봐 서두에서 선포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1994년 1월 초에 구세주가 구속되자 그 이후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재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서해안 쪽에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기차가 충돌하고 거기가 다 저 괘미라는 섬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옥중에 가두니 하나님이 노여워서 재난이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참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해서 참부모가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거나 죽게 하는 재난이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잡아당기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마귀 또한 인간의 생명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마귀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되고 마침내 마귀에게 잡아당겨 끌려간 인간은 점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자식이라

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이 아이의 업이라면 아이를 잡아당겨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아이가 찢어져 죽을까봐 끌어당기던 손을 놓았던 일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정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994년 1월초에 구속된 구세주는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구세주를 한번 옥중에 집어 넣는 것을 만만하게 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세주를 감옥에 계속 가두려고 한 것이 징역 4년을 추가로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중생활 3년 만에 고등법원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금 내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1년 안에 망합니다. 1981년 승리제단을 설립한 이후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이 땅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장마를 막고 태풍을 비껴가게 함으로 17년간 풍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전쟁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도 이 땅에 풍년을 줄 것입니다. 풍년은 결코 농사기술이 발달하거나 비료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비와 태풍을 조절함으로써 이 땅에 17년간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중략)”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주님의 4년형이 추가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신 진술대로 이듬해 97년 말에 국가부도라는 데도 백성들이 굶지 않고 다시 잘 사는 나라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께서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신 까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바울 선생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옥중 문을 열고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아주 얇은 단계에 있는 영의 수준 가지고도 감옥에서 나오는 능력을 행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구세주의 능력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박한수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3>

(지난호에 이어서)

주역에서 금운을 가지고 불도를 이룬 이를 완성의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금운(金運)은 바로 목운(木運)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운이 영모(靈母)님 이신 박대선 장로님이셨다면 금운은 바로 완성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앞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륵부처님이 석존 사후 3007년에 한국에 오신다면, 미륵부처님의 출현 연대 역시 서기로 환산하여 알려드린 것과 같이 1980년이 됩니다.

그럼 경전에서는 장차 오실 미륵부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미륵부처님을 증거하는 경전은 역시 미륵경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도 미륵이 오실 때를 말씀하신 미륵내시경(彌勒來時經)을 보도록 하지요.

[예]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來時經)

彌勒道樹下坐 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米路多手하좌 용사월팔일명성출시득불도

미륵부처님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 불도

를 얻는다.

해설 : 여기서도 미륵부처님이 밝은 별(明星)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의미 있게 알리고 있으며, 혹 어떤 분들은 밝은 별이 어찌 사람의 이름이냐고 하는데,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금성과 화성을 말하는데 그런 별을 받는다면 별이 얼마나 큼니까? 구세주인 미륵불이 별에 갈려 죽으니까 그런 뜻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이런 밝은 별이라는 뜻의 명성(明星)은 매일 밤 뜨고 지는 별이 아니기에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말한 석존 사후 3007년에 미륵부처가 오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밝은 별은 바로 매일 뜨고 지는 별들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찾았고 그럼 성씨가 궁금하지요? 어차피 사람의 몸을 타고 오신다면 성씨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미륵진경에 卍씨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3>

### 석가모니는 왜 음력 4월 초파일에 죽는다고 했다가 스스로 반복했을까? -1

[예] 묘법연화경제 1권 방편품(方便品)제2

我始坐道場 觀樹亦經行 於三七日中 阿私祇道旁 觀水역경행 阿私칠일중 思惟如是事 我所得智慧 微妙第一 사유여사사 아소독지대 미묘최제일 衆生諸根鈍 著樂處所 如斯之等類 云何而可度 중생계근둔 칙락치소맹 여사지동류 운하이가도

내가 도장에 처음 앉아 나무를 보고 삼칠일간(21일간) 지내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니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 미묘하고 제일이나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하랴하고 생각중...

해설 : 근대 법화경 방편품을 보면 석가모니가 설산(雪山)에서 6년 고행후 기력

이 탈진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어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움직일 정도가 되자 석가모니는 스스로의 공부가 더 이루어질까 불도를 이룬 줄 알고 불국토가 언제 이루어질까 등으로 삼집일(21일)을 보내며 미래를 선전에 들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삼집일을 선전에 들어 미래를 보던 중 석가모니는 불도를 이루지 못했고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미륵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석가모니 사후(死後) 3000년이 지난 뒤라는 것과 또 사람을 구원하는데 감로(甘露)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헛된 공부로 알고 스스로 죽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륵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성불하여 부처가 됐는가? 등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 대각(大覺)을 하시고 보니 중생이 모두 기가 무더서(鉤鎖)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8\\_Lotus\\_Lantern\\_Festival-Seoul-01\\_mirror.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8_Lotus_Lantern_Festival-Seoul-01_mirror.jpg)

말씀을 하면, 당시 3000여 년 전의 인도에는 힌두교가 예나 지금이나 무척 교세가 컸고 힌두교의 근본 교리가 여러 신을 대하는 다신(多神)의 사상과,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한다는 윤회사상을 가르치므로 이러한 중생들이 설사 석존이 진리를 터득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일승(一乘)의 진리(真理)인 부처를 이룰 수(成佛) 있는 법을 알려 주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으므로, 빨리 열반(죽음)에 드시려고 하다가 과거에 여러 부처를 생각하여 방편으로서 삼승의 소송법인 현세 대각(大覺)을 하시고 보니 중생이 모두 기가 무더서(鉤鎖)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첫 설법을 불경에 남긴 것이 증일아함경과 화엄경입니다. 이것은 설법 연대에서도 밝힌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증일아함경에 첫 경구에 “與第七佛 同其一名號(여제칠불 동기일명호)”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3000년이 지난 현실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설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석가모니 제세 당시나 현재의 제자들인 스님들도 깨닫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明鐘

건강과 수행

식후(食後)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

에나멜질 손상 않으려면 30분 후에 양치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로 인해 건강식품을 챙겨먹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평소에도 이런 공을 들인다 해도 식후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습관이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후식을 꼬박꼬박 챙겨먹는 등의 행동을 일컫는다. 지금부터 식후 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식사 직후에 하는 양치질

흔히, 우리는 식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는 실제 연구 결과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식사 직후에 양치를 하거나 탄산음료, 맥주, 커피 등을 섭취한 후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질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에나멜 층이 손상되면 이가 약해지게 되고 이 시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을 막으려면 양치질 직후에 물로 가글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

둘째, 식사 직후에 커피와 녹차 마시기

식사 후에 바로 차를 마시게 되면 우선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철분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한다. 따라서 식후 30분 뒤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

셋째, 식후 디저트 챙겨먹기

지금까지 식후에 과일 같은 디저트를 먹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식후에 바로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과일에 포함된 당당류 물질이 위 속에서 정체되

고, 또 이때 생성된 효소로 인하여 발효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좋으라고 먹은 과일로 인해 배속이 부풀어 오르거나 부글부글 끓는 듯한 더부룩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니면 식후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 먹어야 한다.

넷째, 무리한 운동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식후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관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팔다리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게 된다. 근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혈액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위장관으

로 흘러들어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밥 먹고 뛰게 되면 위경련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면들

제대로 소화흡수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몸속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나 하면 그렇지 않다.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은 아주 좋다.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면 소화액 분비도 촉진되고 위장의 연동운동도 활발해진다.

다섯째, 식후 바로 허리띠 풀기

식후에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느슨하게 푸는 경우는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복부의 압박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면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장에 무리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이상 식후 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을 알아보았는데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게 있다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 차근차근 고쳐나가기도 하자.\* 이승우 기자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사람 몸의 빛은 생명”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본래 빛의 신인 하나님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구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화하면 현재의 사람의 형상은 없어진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호흡에 좋은 자세 반가부좌 (연꽃 자세)

호흡: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이 있다.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아기는 배로 숨을 쉬는 태식 호흡, 사춘기에 이르러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어깨를 들쭉이며 숨을 쉬게 된다.

요가의 호흡은 규칙적으로 고르고 깊고 길게 쉬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 원칙을 기본으로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의 순서를 이어간다. 멈추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①: 허리를 펴고 자연스럽게 앉아 배꼽 위로부터 가슴을 약간 끌어올린다.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린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푼다. 호흡과 함께 코 끝에 스쳐 지나가는 숨결을 느껴 본다.

몸을 교정시켜주는 비틀기 자세

호흡: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움직이는 심장, 위장, 혈액, 장자, 근육 등을(불수의근)이라 하는데, 성자의 포즈라고 하는 비틀기 자세는 쉽게 말해 수의근을 이용해서 불수의근을 자극하는 자세라고 한다. 척추를 유연하게, 비틀림 수정, 내장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 척추 신경계와 내장의 각 장기를 자극시켜 주고 신경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소화력 증진,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배설기능이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당연히 콩팥과 심장의



가능이 좋아져서, 복부와 허리 어깨 등

에 균살이 제거되는 효과, 한쪽으로 쏠린 근육을 풀어주고 불수의근을 움직여 림프액 자극, 운동하는 효과로서 무엇보다 나뉠 안정시킨다.

동작②: ‘단다사나’로 앉아서 두 손을 등

뒤에 짚고, 양발을 가지런히 뺀 뒤 오른쪽발을 들어서 왼쪽 무릎 위에 놓는다.

동작③: 숨을 내쉬면서 세운 무릎을 반

대쪽으로 내린다. 시선은 오른쪽 어깨너

머 손끝을 바라본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구부린 다리를 편다. 10초 유지, 좌우 각 3세트.

동작④: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바깥쪽

에 세운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왼팔을 들어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밀면서 발목을 잡는다. 상체를 강하게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시선은 등 뒤를 바라본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내 쉬면서 몸을 풀어 놓는다. 10초 유지, 좌우 각 3세트\*

여담 / 餘談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라?

불교의 선가(禪家)에는 살불살조(殺佛殺祖)라는 말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정말로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라는 말일까? 아니다. 마음을 닦는 일에 있어서 부처와 스승으로부터 그 힌트(hint)는 얻게 되나 정작 마음을 닦는 이는 본인이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다.

살불살조(殺佛殺祖)라니...

여기까지 이해하였다면 행복이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살거나 죽게 되는 구원의 내용조차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작자수(自作自受)로 다가오고 결자해지사(結者解之者)도 역시 본인이다.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매주(每週) 용서를 구하고, 복을 빌고서 마냥 기다리는 저급의 종교, 기독교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고등차원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고 불교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완벽한 종교라는 말은 아니다. 즉, 마음을 닦는 이와 닮아 나가는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오늘날의 불교가 머물러 있음으로 온전한 종교는 못 된다. 마음을 닦는 이는 본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본인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종교가 불교이기에 엉뚱한 길을 가는 승려들이 많이 있다. 사찰 뒷방에서 바둑이나 놓고, 묵화(墨畵) 그리고, 수시로 마술로 내려와 주색(酒色)을 잡는 이들이 ‘본인’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다.

승리제단은 스승을 마음속으로 끌어다 모심으로써

두가지 주제를 정확히 구별토록 하고 있다. 스승의 입장이 되어서 요전 날의 나와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거다. 그래서 귀가 열려 제대로 된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에 프로급 선수가 된다. 그리고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한 명의 생명체로서 다시 태어나 서로를 대하고 만난다. 그 만남에는 남자-여자의 분별도 없고 나이로 인한 분별도 없으며 신분의 고하도 없다. 눈도, 코도, 입도, 마음까지도 똑같은 존재로 만난다. 그래서 승리제단 사람들 중에는 공중에 대고 하나님(부처님)을 찾고 그 하나님(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 인간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를 입고자 열심히 달음 박질하는 사람들이 승리제단 사람들이다.\*

승리제단 사드니 지부 책임승사 안준영 (006)0415 727 001 dcp21b@gmail.com

시 한편

생각 한 줄

행복

김이나

(전작)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난 둘러 고단한 외로움들이 상처받은 가슴의 열로디 노을보다 긴 한숨들이

가을 속에 나의 떨림 다시는 가뉘면 가쁜 그미소 더 내게 보여줘 겁이 날 땀 그건대로 움츠러지 말고 소리내어 불러봐

오 행복 행복 행복을 불러요 행복 오 소중한 행복을 주세요 (후락)



목요일은 우유 배달이 없는 날이라 아침에 아르바이트로 건물 청소한 한 군데 한다. 팔도 바닥을 닦다가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햇살에 끌리어 창밖을 내다보니 햇님이 방실방실 웃으며 기분 좋은 얼굴로 빛을 발한다. 아침에 햇빛을 쬐며 운동하는 것 만큼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없는 듯하다. 동이 틀 무렵 태양을 바라보면 햇빛이 균형이 깨어진 바이오리듬을 회복시켜주고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우울한 감정도 싹 없애주

니보다 좋은 보약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태양을 흠모해서 사람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한다.

옛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알렉산더가 소원을 묻자 당신의 그림자가 햇빛을 가리우니 조금 비켜 주면 좋겠다고 대답했으니 진정한 카르페 디엠의 신봉자라고 하겠다. 과거나 미래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은 절실하다.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현실에서 애를 쓰며 노력하는데 당장 이 순간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잘 사는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이나 지금의 생활을 매일 잠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자. 그리고 그 삶에 자신만의 가치있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즐겨보자.

숨쉬 수 있구나 행복한 일

며칠 전에 우유를 받아드시는 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늘 손수레로 고물을 주우며 부지런히 생활을 하셨는데 몇달 전부터는 몸이 안 좋으신지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 원래 시골에 사시다가 도시로 이사해서 식당도 해보고, 청소부도 하셨는데 전에는 성격이 불같으셔서 싸움도 곧잘 하시고 한량처럼 술 드시는 데 돈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할머니의 속을 엄청 썩하셨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몇주 전부터는 차때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으나 불편하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밍고고 하시면서도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힘들게 수발을 하셨는데 결국엔 응급실로 가서 생을 마감하셨다.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몇달 만에 몸이 안 좋아져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면서 삶에 대한 허무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 동시에 육신부리지 말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임종하실 때 어르신들의 폐가 거의 다 망가져서 숨쉬

기가 무척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몇번 보고 나서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문득문득 느끼곤 한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 양심과 생명이 주어진다. 건강을 잃어 몸이 아파도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한다. 예전에 한 불치병 환자가 병마로 죽을 고통을 하루에 20시간 이상 느끼면서도 잠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 환자는 하루 중 세네 시간을 가지게 쓰고 싶어 나머지 하루의 괴로움을 인내한다고 했다. 구세주께서도 청년시절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막상 구제되고 나니 다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했다. 누구나 삶이 괴로워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엔 살고 싶다는 본성이 살아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속담에도 ‘개똥밭에 똥굴어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옛 속담이 말해 주듯이 삶 속에서 온갖 경험을 많이 할수록 깨닫는 바도 많아지고 나머지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였던 나와 이웃 모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 즐겁고 기쁜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은 행복의 비료

내 주위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여생을 일을 하시며 보내는 분이 몇분 계신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는 귀도 어둡고 손아귀에 힘이 없으신지 글씨도 뽀뽀뽀뽀, 계산도 더디시지만 일을 계속하신다. 월말 결산을 하실 때에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실 때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 시장에서 곡식 및 잡화를 파시는 한 할머니는 낫엔 꾸벅꾸벅 조신다. 매상이 오르지 않아 점포세 내기가 어려워 밤으로 폐지를 주우시기 때문이다. 밤에 우유를 돌리다 마주치면 자그마한 몸에 허리와 어깨도 아프신데 손수레에 폐지를 산처럼 쌓아 강강거리며 물고 가시는 모습이 안쓰럽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한 할머니는 차매가 조금 왔지만 옆에서 호떡을 파시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신다. 평생 일하시던 것이 몸에 배여 일을 하셔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 보다. 어쨌든 불행한 몸으로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늘 손에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존경심도 들고 연민도 느껴진다.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어르신들께 역경을 이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승리제단의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신이 고단할 때가 많지만 잘 이겨내신다. 육체적, 감각적인 행복은 못 느껴도 신앙의 가치적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정신적으로 큰 행복을 누리시리라. 우리 함께 희망의 동아줄로 마음을 뽕뽕 싸매고 씩씩하게 생의 한가운 테를 전진하자!\*

리준경 / 대구승리제단 책임승사

# 나라는 주체 의식이 사망의 영이다

영 자체가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왜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이라고 말할 해야 옳은데,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사람을 만든고로 마귀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면서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마귀는 철천지원수 기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이고로 마귀가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사자귀신이에요. 그 사자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이요, 6000년 묵은 붉은용마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식보고 하나님이라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 된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요? 이 세상에 학문을 없앴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죠? 학문을 논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말 자식은 말이요,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만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었는데 인내천 사상이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할아버지이고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라고 불려왔죠? 오늘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마귀예요. 왜 그러나 하면 주체 영이 마귀이고로 주체 영이 마귀라면 주인 공이 마귀라는 얘기죠? 사람의 주인공이 마귀이니 사람이 마귀일 수밖에 없죠?

**마귀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었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6000년 전에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 인간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양심이 나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6000년 전이에요.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부 죽여 왔어요, 살려 왔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죽여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죽이면 사람은 죽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 학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학문이 전부 잘못된 왜곡된 학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분향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구세주 조희성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죠?

**마귀가 죽을 마음을 주는 거다**  
 마귀 새끼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고 속이죠? 죽어서 천당 가서 영혼이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끼고, 이와 같이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로, 하나님의 영을 죽이므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야, 유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야?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나이만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먼저 쥐가지고 그다음에 지켜서 쓰러질 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주 잔악한 신이고, 마귀가 악한 신이고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다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은 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 있어, 죽은 사람의 피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자식 속에 있죠?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피로 자식이 만들어지죠? 부모의 피가 자식 속에 있죠? 자식 속에 그 부모의 피가 있듯이 오늘날 자손만대로 최고의 조상의 영도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게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널리 전파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곳이 내세**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고, 그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 있는 고로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 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산다면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세(來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말로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죠? 왜 어둠의 세상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야 아무것도, 아는 거라곤 그저 밤 먹고 똥 싸는 것밖에 몰라. 아는 거라곤, 이사

람 말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도로 되어야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는 거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간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쓰여 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령이 하나님이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지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었으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마음 품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2000년 11월 14일자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9) 가나안 세겜 땅에 돌제단을 쌓는 야곱

에서가 남쪽 세일 땅으로 돌아간 후, 야곱은 동편 압박강을 건너자마자 수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족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 30킬로미터쯤에 있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성읍 앞에 있는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 밭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Elohe Israel)'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압박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세겜 땅에 돌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녘에 마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축복하였는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돌단을 세워 기념한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이러한 야곱의 행위를 보게 된 공중신(空中神) 마귀는 하나님의 신이 야곱과 함께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올거니, 야곱의 조부 아브

## 《3장 야곱의 하나님》

# (9) 가나안 세겜 땅에 돌제단을 쌓는 야곱



야곱 속의 하나님을 죽이려는 공중신(空中神) 마귀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 (창세기 34:25) - 'The slaying of the Shechemites', James Tissot 작

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여기 세겜에 단을 쌓고 새벽마다 쫓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없앴 목적으로 가나안 전역에 걸쳐 흉년을 들게 한 적이 있지. 이번에도 그의 손자 야곱이 세겜에 제단을 쌓을 줄이야! 야곱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음란의 뜻을 사 용해야지!' 하고 마귀는 십여 년의 세월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 창세기 33장
- 18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사타에 샀으며
-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마귀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지배를 받아오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족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밭까지 은 100개에 팔아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 터를 제공한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 간에 불화를 조성하여 공멸(公滅)시킬 수 있는 계책을 마련



디나의 유혹 - https://jerusalemchannel.tv/the-tragedy-of-jacobs-daughter-dinah/

하였습니다. 야곱이 97세에 밧단아람을 떠나 이곳 세겜에 머문 지 십여 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의 98세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는 이제 열네 살이지만 조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가 이방인들처럼 아한 옷차림을 하고 세겜 땅에 사는 자기 또래의 여자를 보러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물의 아들, 세겜의 마음을 점령하여 디나에 대한 음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겜은 디나의 옷차림을 보고 신랑을 구하는 동족의 처녀로 알고 끌어들여 통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나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소녀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아들이 저지른 일로 야곱을 찾아뵈고 그에게 정중히 사

과하였습니다. "나의 아들 세겜과 당신의 딸 디나를 서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데 필요한 몸값과 예물을 요구하는 대로 치르겠습니다." 그때 마침 들에서 목축을 하던 야곱의 아들이 집에 돌아와 누이동생 디나와 하물의 아들 세겜이 통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나를 끌어 들인 세겜은 세겜 성읍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상대하기에는 벼 찾습니다.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누이동생 디나를 아내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히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세겜 성문에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넓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용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매매하고 통혼하면 자연히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 곧 그들의 가족과 재산이 우리의 소유나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우리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통치자 세겜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디나의 일로 야곱의 가족과 세겜 사람들이 불화하여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평을 꾀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함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디나와 같은 한 어미(야곱의 첩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의 심령을 점령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22세의 시므온과 21세의 레위는 마귀가 주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에 신음하고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쳐 모조리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협박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49장 5-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같은 간해하는 형제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욕에 상관하지 말찌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진화에 참여하지 말찌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형제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흠으리리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거슬러 말대꾸까지 하는 불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의 누이를 청녀같이 취급한 자를 가만둘 수 있어?"(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 The Awareness of 'I' is the Spirit of Death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The spirit itself is life, human life itself is the Spirit of God, the reason why the Spirit of God is in a man is because man is God's child. It is right to call that a man is God because he is the child of God. But as Satan occupied God and made God humans, Satan named the occupied God a human. So if you become a God again and live forever, and the devil will have no place to stand. The devil is the mortal enemy of God. The enemy of God is Satan because it is the spirit of death. The spirit of death is the awareness of 'I', which is the 6000-year-old Red Dragon.

## We should call the children of God Gods.

However, the people in this world does not know that a man is a God captured by demons. So This man tells that there is no learning in this world. Although the subject of academic discussion is a human, not knowing the reality of a person means that there cannot be a science, right? The child of God is God, the puppy is a dog, a calf is a cow, a baby of a monkey is a monkey. But if we call God's child a man, does that make sense? No. As we should call the child of God a God, ever since Dangun grandfather, Koreans have been saying that humans are Gods, right? It is only in our Korea. Koreans have said the InNaeCheon Thought, which means human beings are Gods. Because God accompanied Dangun grandfather, he knew a human is God.

Howeve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re calling people human beings as Satan teaches. Today Satan calls Gods

humans, the word, 'a human' itself means a devil. Humans are devils. Because their controlling spirits are devils, if one's controlling spirit is a devil, their owners are devils, too. As the owner of a human is a devil, a man is a demon, right?

## At the moment God looked at Satan, the spirit of Satan came in

However, in fact, humans were Gods. When Satan in the image of God with the imitating power appeared 6,000 years ago in front of Adam and Eve who were Gods and the ancestors of men, they opened their eyes wide thinking it was God, the spirit of Satan came through their eyes, pushed away the spirit of God, became the awareness of 'I', and it became their masters. God remains in men as conscience, and their conscience is governed by the awareness of 'I', right?

Therefore, it was 6,000 years ago that God began to be ruled by demons. The devil has killed all of God's children, coming down to all his descendants.

Demons have killed Gods. When the spirit of God is in a human, he is alive, when demons kill the spirit of God a man, he dies. Not knowing something like this means there's learning in this world. All of a person's learning are distorted wrong. Today if we want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hich is our home country, we must be reborn as God, then we can go and live in God's house, right? The house of God is heaven?

## The devil gives you the heart to die.

The devil seduces that the soul goes to heaven when a man dies, lives forever as a spirit, right? The cults tell a lie to people.

The reason people die is because the spirit of God die in them. As the spirit of humans is the spirit of God, devils kill the spirit of God, people die, so people do not know since they are ignorant.

They think people die due to putting on years, soon they will die and have the mind to die. The devil gives people the heart to die first, and then when they are tired and fall down, the devil kills them. The devil is a very evil god, so all people are killed by the evil god.

## The spirits of one's ancestors are in their bodies.

Where is the spirit of the dead? The spirit of the dead does not go up to heaven, but the spirit of the dead is in the child? The spirit of the dead is the heart of the dead, right? The heart is influenced by the blood? So the blood of the dead is in their children. Does the blood of the dead fly into the air? No. It is in their children. There is the spirit of the dead in the living.

There's the blood of the dead in their children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blood of the parents. The blood of parents is in their children. As there is the blood of parents in their children, today, we have the spirit of the first ancestors of all humans in our living bodies, right?

That is, the spirits of the dead are in the living. The people do not know this fact because they are ignorant. That ignorant people's learning is not science. We have a duty to announce widely that the spirits of our ancestors are in our

bodies.

## It is afterlife where the dead live.

The spirits of the dead are in the living, when the living person dies because devils kill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life, when you're alive with the spirits of the dead in you, the spirits of the dead live with you. You do not live alone. You live with your ancestors' spirits. Your ancestors' spirits live in you. You're living in the afterlife of your mother and father. That is afterlife. Do pseudo-religions talk there's the afterlife in some other world? They say that because they are ignorant. The world where the spirit of the dead lives is the afterlife. If one's grandparents live in their grandchildren, they live in after afterlife in their grandchild. If great-great-grandparents live in their great-great-grandchild, they live in after after afterlife in their great-great-grandchild.

Not knowing this, the world is dark. The Bible also says like that. Do you know why it's a dark world? They know nothing.

## At present, humans' hearts are demon's hearts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must become Gods back to go to heaven. Everybody does not go to heaven. Only God goes to heaven according to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You are saved by being reborn as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John 3:5. Being born as the Holy Spirit means that as the Holy Spirit indicates God, only by being reborn as God, one is saved, and the meaning that humans were Gods 6000 years ago is in the word. The word, "Be

reborn" has a meaning that humans were God in the old times. It means that as human beings were Gods, be born again as God. That implies that humans are Gods.

Also, the Bible says "Act in God", "Conceive the heart of God!" That means that nowadays you do not have the heart of God, but have the heart of devils. Fools do not know the word. Although foolish people read the Bible, they can't sense the meaning behind the words. Because their controlling spirit is the spirit of devils. The word, "conceive the heart of God" signifies that people have the mind of demons. The word, "Conceive the heart of God" means "Become God" Only God has the heart of God, humans cannot have the heart of God. It means, "Become God."

## Humans cannot go to heaven.

Christians only carry the Bible, and they don't know the meaning behind it. They think they get saved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Can sinners become God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No. You must be reborn as God. Human cannot go to heaven; human beings cannot go to the utmost joy land and cannot go to the house of God because they are not Gods. The word, "People go to heaven by believing Jesus" is an incredible lie.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in the word and go to church diligently, but they are very deluded. People are never expected to go heaven.

## Kill the awareness of 'I'

The Bible says that Adam and Eve died due to eating the Forbidden

Fruit. Also it says that all the words of the Bible are spiritual. That is, the Forbidden Fruit is a spiritual fruit. As the Forbidden Fruit is a spiritual fruit, it is spirit? As Adam and Eve died of eating the Forbidden Fruit, it is the killing spirit. The killing spirit is God or devils? Devils are the Forbidden Fruit. What Adam and Eve, the ancestors of humans ate the Forbidden Fruit is taking the killing spirit. The killing spirit is in their descendants. Because they were made of the blood of their ancestors, today, where is it in their descendant? The awareness of 'I' is the Forbidden Fruit.

Today, cult religions do not know that the awareness of 'I' is a demon, the Forbidden Fruit, They say that humans believe in Jesus and go to heaven. The awareness of 'I' cannot go to heaven because they are devils. The Bible writes "Throw 'I' away all the time." Why would it tell you to throw it away? It tells you to throw it away because 'I' is a demon. As people die of this demon, we should kill the awareness of 'I'. If we have a knife, should we kill it? But it is not killing the body of humans? It is killing devils, the awareness of 'I'. How do we kill the awareness of 'I'? The awareness of 'I' is the spirit of desire. So, the opposite of desire is sacrifice. The opposite of greed is giving. That is, by living a giving life and by living a sacrificial life, demons die. The man who knows the method of killing demons is the Savior. If he does not know the way, how does he save people? Considering This man teaches the way of saving people in detail, he is the true Savior?\*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January 7, 2002  
Translation: Angela Kim

#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많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르다 등등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말을 쓴다. 또한 마음이 크다든가, 작다든가 하는 말도 쓴다. 마음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서 어떤 때는 좁쌀보다 작아지다가 어떤 때는 우주만큼 넓어지기도 한다. 마음은 요술을 부린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동식물도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식과 마음은 다른 것인지 등등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먼저 마음은 어디서 나오기를 알아보자. 어떤 이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도 하고 심장에 있다고도 하고, 우주심(宇宙心)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의 의식으로까지 그 마음의 출처를 확장하기도 한다.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KBS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마음'에 대해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후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여 2006년에 내놨다. 그 책이 바로 『마음』이다. 이 책에 따르면 마음은 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뇌의 고등기능이다라고 정의하며 마음은 뇌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신경과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일관되게 '마음이란 두뇌의 화학작용, 생리학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뇌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유전자가 주인이라고 말한다. "뇌의 작용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확실히 뇌의 작용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만 몸속의 최고의 사령탑은 유전자이다. 정신작용과 유전자의 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 열쇠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혁명』 사람과 책, 1999년 무라카미 카즈오(村上和雄)

이들의 주장처럼 마음은 두뇌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유전자에 있는 것일까? 마음이 두뇌에 있다면 두뇌 바깥에서 두뇌를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뇌를 인식하는 두뇌 밖의 어떤



유식사상의 기초를 다진 무착(사진 좌)과 세친 보살



것은 두뇌의 기능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궁구하면서 마음이 두뇌에 있다고 한정하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유식사상가들은 말한다. 2013년 민족사에서 펴낸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저자 요코하마 고이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로 옮겨본다.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볼 때 붉고 둥근 형체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

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과는 마음 중의 영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보이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 '본다'라는 것은 '보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 본다, 즉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마음'과 '보는 마음' 중에 전자를 확실하게 볼 수 있

습니다.(실제로 사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자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다른 사물을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 그 자체를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보고 있는 '보는 것'은 '보는 그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는 것'이 보일 때는 그것은 이미 '보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만, '보는 마음'은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뇌 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가 없는 '마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마음이 변하면 뇌도 변하고 뇌가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며 마음과 뇌는 서로 관계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마음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정신작용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말나식(末那識),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즉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작용인 오식(五識)과 사고작용인 육식(六識)이다. 여기에 자아집착심인 말나식과 모든 식(識)의 근본바탕이 되는 아뢰

야식을 합쳐서 팔식(八識)이 마음이 된다고 한다. -유식사상에 대해서는 민족사에서 펴낸 『마음의 비밀』 참고하세요.

유식사상은 무착(無着)이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을 친견하여 배운 것으로 무착의 동생 세친(世親)에 의해서 체계가 완성된 불교 철학이다. 불교는 마음공부를 중시하므로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려 고 애를 썼는데 유식사상에서 마음을 궁구하여 이렇게 밝혀놓았지만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구(論究)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원래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마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고 할 터인데 이 점은 미흡한 부분이다. 유식사상이 아뢰야식이라는 근본의 마음을 가정하고 그 아뢰야식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뢰야식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가 지은 업장은 아뢰야식에 남아서 그것에 따라 윤회 환생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윤회 환생에 대한 불교교리를 살펴보기에는 본래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와 너무 빗겨나가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b>제21편</b>
<b>제3신앙촌시대 마지막</b>
一. 삼천년성(三千年城)
二. 삼신양촌과 삼천년성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1) 구세주가 출현한 나라 대한민국
2) 구세주가 발하는 빛이 온 우주를 밝힌다
3) 동방에서는 구세주의 영광을 서방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경외(敬畏)한다
4) 열방의 재물이 다 구세주에게로 온다
5) 구세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破滅)한다
6) 영원한 천국 삼천년성인 하나님의 나라
7) 회복(回復)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首都)가 소사(素沙)에 세워진다

###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지금까지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불경과 격암유록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보겠다.

#### 불경)

“아미타불이 대 광명을 놓아서 서방세계를 다 비추니 수많은 하늘과 땅과 수많은 해와 달 등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부처의 광명만이 더욱 드러나거늘 (불경 수능엄경 4권28쪽)”

#### 격암유록)

日光晝更無月光之極 七日色寶石照 일광주경무월광지구 칠일색보석조 列邦望色福地來 更無月虧不夜光明 열방망색복지래 갠무월휴불야광명 (來貝豫言六十一歲)

“햇빛이 비추는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필요없는 세상이다. 일곱색깔의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빛나네. 세계 열방이 그 빛을 바라보고 복된 이 땅을 찾아오며 다시는 달의 이즈러짐이 없고 밤이 없는 광명의 세계이다.”

격암유록에도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 발하시는 빛으로 온 천하가 밝게 비추어지게 된다는 말씀이다. 열방이 7색으로 발하는 보석같은 빛을 향하여 속속 한국으로 찾아온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모든 완성의 원리는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니 참으로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유풃선의 원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신 조희성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만다.

3) 동방에서는 구세주의 영광을 서방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경외(敬畏)한다

삼천년성 에덴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인공이 계시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서의 서로 상반된 현상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서방에서는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고 해돋는 곳에서는 그의 영광을 경외하리니(사59:15)”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에는 구세주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이다. 이때에는 감사하게도 구세주가 출현한 해돋는 곳 즉 동방에 속한 한국사람들은 구세주님의 영광 속에 직접 동참해서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구세주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의 서양 사람들은 멀리서 구세주님의 이름만 머리 속에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경외할 것이란 예언이다.

이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출현하신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4) 열방의 재물이 다 구세주에게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주인공 구세주가 계시는 곳이 우주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열방이 구세주 계시는 한국으로 황금보화를 신고 조공을 바치러 몰려온다고 하였다.

“네 눈을 들어 사편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네게로 오느니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아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이끌어 옴이라(사60:4-5, 60:11)”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사가 선지가 예언한 2600여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경은 유풃인이 쓴 것이니 이 예언 말씀도 막연히 유풃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세주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출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세계 열방의 왕

들이 금은보화를 신고 구세주 정도령님이 계시는 한국으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진경(眞經)이 있다. 바로 남사고 선생의 유록이다.

遠邦千里運糧日 實貨萬物自然來 豫言 원방천리운량일 보화만물자연래 예언 不遠朝鮮祥矣...歌謠諠謠 불원조선의 가사요

“원방천리 먼 곳에서 금은보화 산해진미를 신고 온다는 이 예언이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선 즉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남사고 선생은 열방이 재물을 신고 구세주 계시는 나라로 온다고 성경에도 비결서에도 다 써어 있는데 이와같은 예언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

그뿐이 아니고 열국왕들이 금은보화를 신고 들어오는 항구까지도 예언해 놓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漸近海運苦盡甘來 海洋富近來로다. 淸近海운고진감래 해양풍부근래 千里萬里遠邦船이 夜泊千艘 仁富來라. 천리만리원방선 약박천소 인부래 (海運開歌 해운개가)

“점차 다가오는 가까운 날에 크고 넓은 바다의 운이 열려 고생은 끝이 나고 즐거움이 온다. 해양의 풍부함이 가까이 오니 천리만리 떨어진 먼 원방에서 천척의 배들이 아박을 하기 위하여 인천과 부천지간으로 몰려온다.”

점점 다가오는 가까운 날에 고생은 끝이 나고 즐거움만이 오는데 천리만리 원방에서 천척의 배들이 아박을 하기 위하여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항구로 몰려온다고 한 것이다. 지금 인부지간에 ‘대부도’, ‘제부도’, ‘오이도’라는 항구가 건설되어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或悲或喜 仁富之間 夜泊千艘 和氣東風 혹비혹희 인부지간 약박천소 화기동풍 萬邦和...未運論 만방화 말운론

“혹은 슬프고 혹은 희색이 만면하여 기쁨이 넘치겠는데 인천과 부천으로 몰려와 아박을 하는 배가 천소에 이른다. 화사로운 동풍에 세계 만방이 평화롭겠구나”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부두로 1000척의 배가 금은보화를 신고 몰려오는데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게 된다. 이것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서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가 하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가슴을 찢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사60:5)”

구세주께서도 이 광경에 너무 기뻐서 희색을 발하신다고 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구세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역사하던 무리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때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배들이 신고 들어오는 황금과 보화들은 마음껏 쓰고도 남는 것을 수원, 서울, 개성으로 이어지는 곳에 보물 창고를 지어서 쌓아 놓는다고 하였다.

弓乙聖山無祈不通 金銀寶貨用剩餘 궁을성산무기불통 금은보화용잉여 (來貝豫言六十一歲라파에언옥십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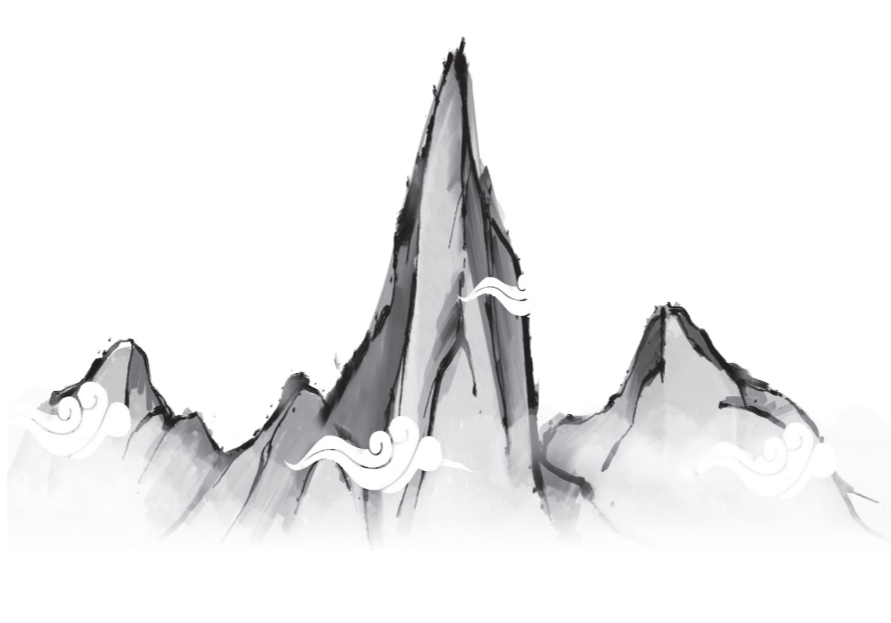
“궁을십승 구세주가 계시는 성산은 기도없이 통하지 않는 곳이고, 금은보화는 쓰고도 남는구나”

十二帝國朝貢일세 華城蕩易松京까지 십이제국조공 화성한양성경 寶物倉庫싸였으니 보물창고 造築金剛石彫城은 夜光珠로 端裝하니 조출금강석조성 야광주 단장 鷄籠金城燦燦이어 日無光이 無晝夜를 계룡금성찬란 일무광 무주야 (桃符神人 도부신인)

“세계 열방이 조공을 바치려고 몰려오는데 화성(수원)에서 한양(서울), 송경(개성)에 이르기까지 보물이 창고에 쌓였는데 금강석으로 조각을 하여 성을 쌓고 야광주로 단장을 하였으며 계룡(鷄籠)인 한국에서 금성(金城) 즉 금은(金繩)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발하는 빛이 너무도 찬란하여 해가 빛을 잃고 낮과 밤이 없구나”\*

다음호에 계속

## 운이 오고가는 이때에 중입(中入)에 들지 못하면 복이 없어 죽으리니 가련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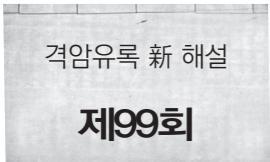
不入中動無福者 불입중동무복자로 未及以死可憐 미급이사기려구나

유풃선이 합일한 황극(皇極)의 선운(仙運)에는 고달픔과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지니 늙어 병들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세상(선운)에도 있겠는가? 황극 선운이란 황제 즉 천자의 법도(하나님의 자유율법)로 다스려지는 신선 세계의 운을 말한다. 여성남하(女上男下)의 계룡(장녀장남=풍뢰의괘)운에는 남녀조화가 같이 일어나니 이는 화운으로 삼풍해인을 용사(用事)하는 아미타불이 오셨음이라. 새 시대의 불도 창성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운에 이어 운이 또 열리고 다시 새로운 운이 열리니 선천 후천 지나가고 중천이 오는 것이 그것이니라.

중천에 오시는 이분은 만병을 다 고쳐서 다시 젊어지게 하니 이분이 해인대사요 병이 골수에 박힌 무도자를 불사영생 시키려고 하도낙서의 이기(哩氣)의 기묘한 해인묘법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여 숨겨오다가 동서 각국을 제외하고 예의 동방 무궁화 나라의 자하도로 건너와서 남조선을 택하여 박활(朴活)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주느니라. 박활이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받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물(불사영생의 보물인 삼풍해인)을 전해주건만 버려지 같은 인생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만하고 방자하며 시기하고 교만하며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좁은 지식과 식견으로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는 채 스스로를 기만함으로써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개 속을 방황하듯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런 중에 천지는 순환 왕래하여 지귀(地鬼)의 운이 가고 천신(天神)의 운이 와서 중천운을 맞는 종말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은 중입(中入)에 들어가지 못하여 무복자(無福者)가 되어 불사영생의 마지막 관문에 이르지도 못하여 죽게 되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海印三豐不覺 해인삼풍불각하고 十勝弓乙獲得 십승궁을획득하야 須從白兔走青林 수종백토주청림은 西氣東來仙運 서기동래선운버더 滿七加三遊亂處 만칠가삼떠란처로 鷄籠白石傳 계룡백석전했으나 先後到着祕文法 선후도착비문법 隱頭藏尾混難 은두장미혼난하야 迭序判斷不覺 질서판단불각고로 日去月諸不顧 일거월제불고로다 泛濫者 범람자는 無味무미하고 深索者심색자는 有味과유미고로 天藏地祕文祕法 천장지비문비법이 日月解印일랑해되고보니 靈台中 영대중에 有十勝 유십승을 捨近就遠 사근취원하엿구나



### 松家田 승가전

儒佛仙合皇極仙運 유불선합황극선운 手苦悲淚 수고비루업섯으며 衰病死葬 一坏黃土 쇠병사상 일坏황토 쇠병사상일배황토 此世上차세상에잇던말가 女上男下鷄籠之運 여성남하계룡자운 男女造化一般 남녀조화일반이라 海印三豐亞米打打 海인삼풍아미타불 佛道昌盛 불도창성이아닌가 新運神運更新運 신운신운갱신운에 先後過去中天來 선후과거중천래라 萬病回春海印大師 만병회춘해인대사 病入骨髓無道者 병입골수무도자를 不死永生 불사영생시키려고 河洛理命海印妙法 하라리기해인묘법 萬世先定隱藏 만세선정은정터니 東西各國除外 동서각국제외하고 禮義東方權花園 예의동방근화국에 紫霞島 자하도로건너와서 南之朝鮮先定남지조선선정하야 朴活 박활의개傳位전위하사 無價之寶傳 무가지보전권미는 氓虫不識不覺 맹충불식불각하야 偃慢謗恣猜忌嬌心 거만방자시기교심 坐井觀天知識 좌정관천지식으로 不顧左右自欺 불고좌우자기로서 真理不通仿徨霧中진리불통방황무중 天地循環往來 천지순환왕래하야 運去運來終末日 운거운래종말일에

리를 숨기어 혼란스럽게 기록하여 질서판단을 깨닫지 못하게 한 고로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 분수와 그릇이 작아 이 비문법이 자신에게 너무 박찬 자는 글의 참 뜻을 깊이 파 볼 능력과 의지가 약해서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고 비문을 깊이깊이 탐구한 자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고로 천지에서 감추고 숨긴 비문법을 밝게 헤아리고 깨닫게 되어 마음속에 심심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멀리 바깥세계에서 찾으려 하였던 것을 알게 되느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b>승리신문</b>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